

함평군, 농·특산물 활용 제과제빵 교육 실시

무화과·샤인머스켓·대추·단호박 활용 총 4회 걸쳐 진행 군민 24명 대상...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 기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함평 농·특산물 활용 제과제빵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 군민 24명을 대상으로 '함평 농·특산물 활용 제과제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역의 주요 특화 작물인 무화과, 샤인머스켓, 대추, 단호박을 활용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제과 및 디저트류를 배우는 과정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김평준 기자



신안군, 10월31일까지 강홍구 전시회 개최

신안군은 압해읍 천사읍 분제공원에 위치한 저널노을미술관에서 9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홍구 《신안바다: 뱀, 모래, 바람》 전시회를 개최한다.

강홍구(1956~) 작가는 신안군 어의도가 고향으로 목포대학교 홍익대,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으며 인문 사회적 도시풍경과 우리 사회의 문명 비판적 시각을 담은 사진 및 페인팅을 혼합한 플라주 작업으로 작가만의 독자적 작업 세계를 구축해왔다.

고향 어의도에서 뱀과 바다를 놀이터 삼아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10대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도시로 나간 작가는 1970년 전후 격동의 한국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낸 백전노장 예술가로 돌아왔다.

강홍구 작가는 도시에 살면서도 지난 17년 동안 부모님과 형제가 사는 고향마을 인근을 비롯해 신안의 밭고 밭, 크고 작은, 섬과 섬을 다니며 바다, 뱀, 모래, 바람을 기록한 방대한 작업을 지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아왔다. 그 작업의 반대편은 찰나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작가는 "2002년 무렵 오랜만에 고향 신안 섬들을 방문했을 때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알던 모든 것들이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보였다. 익숙한 낯설음 혹은 기시감을 지난 미시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느낌은 내 기억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 엄청난 틈이 있음을 뜻했다."라고 언급하였다.

강홍구 《신안바다: 뱀, 모래, 바람》 전시는 지난 6월 서울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시작되었으며 한가위를 앞둔 9월 8일부터 저널노을미술관과 압태창고미술관(압태면 단고리 101) 두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저널노을미술관에서는 신안군의 섬과 바다 풍경을 담은 사진과 어린 시절 벌거벗고 뛰어놀던 뱀을 찍고 그린 작품 36점을 볼 수 있으며, 압태창고미술관에서는 17년 동안 찍은 사진 중 엄선한 작품들로 이루어진 영상을 볼 수 있다.

50여 년 전 도시로 간 강홍구 작가는 수많은 전시 이력과 작가로서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고향 신안에서의 전시가 처음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의 바다와 뱀이 배출한 강홍구 작가가 17년간 카메라에 기록한 작업은 신안의 역사와 변천사를 담은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작업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전시는 2023년 4월 서울 사비나 미술관에서 더욱 확대된 전시와 함께 사진 자료집이 발간될 예정이다.

강홍구 작가(1956년생, 신안)는 《신안바다-뱀, 모래, 바람》(원앤제이 갤러리, 2022); 《청주-일곱 마을의 도시》(우인아트센터, 2016); 《우리가 알던 도시》(국립현대미술관, 2015)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다.

현재 강홍구 작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고은사진미술관장을 역임하였다.

신안=이명주 기자

목포는 맛이다!...목포미식페스타 개최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

대한민국 대표 '맛의 도시' 목포시가 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인 '목포미식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개관한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오는 23-24일 진행되는 데 단순히 먹고 즐기는 획일화된 음식 축제가 아니라 인문학적 요소를 추가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개막행사는 영화 속 음식을 음악으로 재연한 재즈공연, 식재료를 이용한 '컬리너리 아트 퍼포먼스', 스타셰프의 '푸드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이어 목포 청년셰프, 명인들의 '목포의 맛 토크쇼', 전경과 음식에 관한 '음식인문학콘서트', 9미(味) 식재료와 와인의 조화를 경험

하는 '목포! 와인을 만나다', 전통주의 매력을 알아보는 '전통주토크쇼', 남도음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채로운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목포미식페스타는 목포의 대표 축제 중 하나로 문화재 야행, 건막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려 원도심의 가을은 더욱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할 것이다"면서 "목포미식페스타가 앞으로 목포 미식문화관광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군, 여성교육 취미교양과정 수강생 모집

신규과목 개설 및 야간반 등 21과목

영암군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2022년 여성교육 제3기 취미교양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교육 취미교양과정'은 여성들에게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교육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에는 4월에 제1기가 개

강하여 14과목 운영, 117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제2기에는 16과목 운영, 148명이 수강 중이다.

이번 제3기 취미교양과정은 관내 여성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직장과 농사일로 바쁜 여성들의 편의를 위한 야간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과목으로 디저트 떡, 원예테라피 등 5과목을 추가운영하여 총 21개 과목으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영광군은 지난 6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를 위한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군에서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진 납부 의식 제고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4회 경품 추첨을 하고 있다.

이번 경품 추첨 선정 기준은 2022년 7월 정

기분 재산세를 납기내에 5만 원 이상 납부한 관내거주 중인 개인납세자이다.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 감사팀장의 입회하에 전국 표준지방세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총 대상자 5,512명 중 120명이 당첨됐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미래농업 이끌 청년후계농 간담회 개최

무안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2022년 청년후계농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0년, 2021년 선정된 청년농업인들과 멘토,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전문강사의 청년농업인이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2-3년차 사업대상자들의 의무 이행사항인 현장지원단 사업 안내가 이뤄졌다.

청년후계농 현장지원단은 간담회, 현장농가 방문 등을 통해 영농생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 2-3년차 청년농업인들의 의무이행 과정이다.

군은 간담회 후 멘토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영농현황과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